

'출판의 힘, 출판인의 힘'

출판계의 '등뼈' 서울출판인 포럼

'죽으나 사나 출판을 하고자 하는 사람', 명문화되거나 세상에 공표된 바도 없지만 '서울출판인 포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이 모임 참가자의 자격 요건이다. 거창하지는 않지만 까다롭기는 그 지없는 이 자격요건 덕분에 서울출판인 포럼은 '한국 출판계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출판사 대표들의 모임'이라는 상징성을 어렵지 않게 얻는다. 말하자면 한국 출판계의 '등뼈'라고나 할까.

지난해 말 몇몇 출판사 대표들 사이에 선동적인 구호가 나돌기 시작했다. "모이자, 모이는 것이 힘이고 힘이 곧 출판문화를 키우고 우리 문화 전체를 살찌운다." 그렇잖아도 단순한 친목모임을 넘어서 출판계의 현안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던 많은 출판사 대표들이 동참의 뜻을 밝혔다. 서울출판인 포럼은 이렇게 탄생했다.

'모이는 것이 힘'

지난 1월 10일 조선호텔에서 열렸던 창립 총회에 참석한 출판사는 40여군데. 한길사의 김언호 사장이 총무를 맡았고, 세계사의 김선호, 한울의 김종수, 문이당 임성규 사장이 간사로 선출됐다. 이밖에 교문사(유제동), 기문당(강해작), 까치(박종만), 나남(조상호), 다산(강희일), 다섯수레(김태진), 돌베개(한철희), 문예(전병석), 미진사(김현표), 민음사(박맹호), 민족사(윤재승), 밀알(이경용), 범우사(윤형두), 범문사(배효선),

'죽으나 사나 출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서울출판인포럼의

명문화되지 않은 참가자격이다.

덕분에 이 모임은 한국 출판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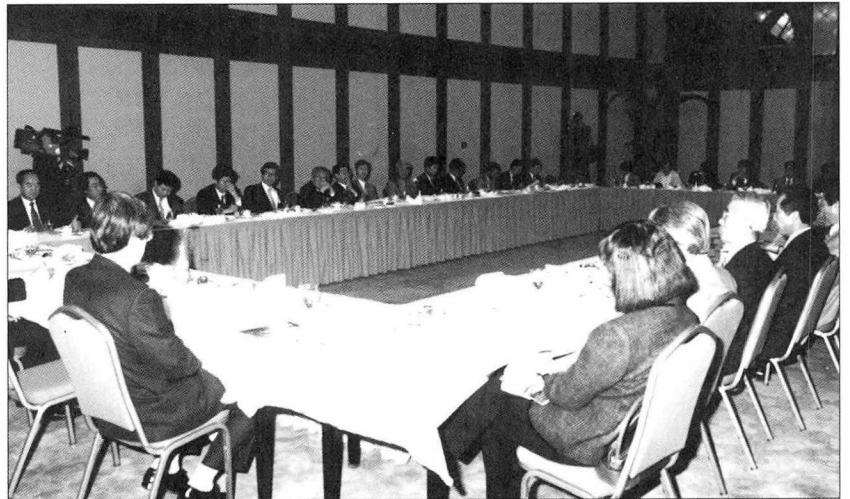
'등뼈'를 상징하게 됐다.

비봉(박기봉), 산하(소병훈), 언어문화사(이동명), 열화당(이기웅), 영진(이문철), 웅진(윤석금), 일진사(이정일), 자작나무(최청수), 지식산업사(김경희), 지경사(김병준), 창작과비평(이시영), 평화출판사(허창성), 한양출판(홍승대), 해냄(송영석), 홍익출판사(이승용) 등 한국 출판계의 내로라 하는 출판사 대표들이 이 모임에 참여했다.

"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판인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세상에 이야기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서울출판인 포럼의 결성 계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김언호 총무는 이 모임의 목적을 크게 세가지로 간추린다. 우리 출판계의 문제들을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사회문제로 공론화하는 한편, 정책이 반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연배도 다르고 출판분야도 다르지만 출판계 공동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이들 출판사 대표들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 아침 7시면 모여 출판사 업무 시작 전인 8시 30분까지 아침을 겸한 모임을 진행한다. 명색이 대표인데 업무 중에 잠깐 시간



매월 둘째주 화요일 아침의 조찬 모임.

을 낸다 한들 누가 무어라하겠는가 싶은데, 새벽길을 달려나와 모임을 갖는 회원들의 시간에 대한 엄격함과 의욕이 반갑기만 하다. 모임의 내용은 대체로 외부 초청인사의 주제발표와 질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출판계 내부의 긴급한 현안이 있을 경우는 회원들만의 자체토론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외부인사 초청해서 토론도 벌여

창립 이후 지금까지 서울 출판인 포럼이 초청했던 인사들을 보면 남시욱(문화일보 사장), 조순(서울시장), 이수성(전 총리), 이현락(동아일보 신문본부장), 류 건(교보문고 대표) 등 출판문화의 발전과 밀착된 인사들이 중심이었다. 서울출판인 포럼은 앞으로 출판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나 출판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

향력을 가진 인사들을 초청한다는 방침인데, 이를 통해 출판 및 출판인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출판계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이해 시킨다는 계획이다. 오는 9일로 예정된 9월 모임에는 문체부장관을 초청한다.

"이 모임이 좀더 정착이 되고 일정한 토대가 마련되면 출판계 이익을 위한 힘있는 발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연구지 발간이나 전문 출판인 육성을 위한 교육작업도 할 계획입니다."

김언호 총무는 서울출판인 포럼이 '출판의 힘, 출판인의 힘'을 모으고 이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을 자청하고 나섰음을 강조한다. 서울출판인 포럼은 5일부터 6일까지 젊은 편집자들을 위한 '추곡리 출판캠프'를 연다. '힘'의 세습을 위해서다.

— 박남정 기자

土木·建築 分野 専門 圖書 出版 傳統 26年!

建設研究社·韓國積算研究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66-9

TEL : (02)324-4996 · FAX : (02)338-1153

'97 建設 標準 품셈

A5 · 1,088面 · 34,000원 · 全仁植

'97 土木 工事 標準 品셈

A5 · 816面 · 24,000원 · 全仁植

'97 建築 工事 標準 品셈

A5 · 672面 · 23,000원 · 全仁植

'97 機械 設備 工事 標準 品셈

A5 · 432面 · 18,000원 · 全仁植

'97 電氣·通信 工事 標準 品셈

A5 · 736面 · 24,000원 · 全仁植

'97 電氣 工事 標準 品셈

A5 · 472面 · 17,000원 · 全仁植

'97 通信 工事 標準 品셈

A5 · 352面 · 14,000원 · 全仁植

建設 積算學

B5 · 412面 · 15,000원 · 全仁植

建設 機械·施工

B5 · 544面 · 28,000원 · 全仁植

土木 施工法

B5 · 564面 · 30,000원 · 全仁植

建築 施工法

B5 · 576面 · 28,000원 · 全仁植

建築 測量

A5 · 252面 · 15,000원 · 全胤植

最新 建設用語 大辭典

A5 · 1,320面 · 65,000원 · 全仁植

최신 건축·토목 용어 대사전

A5 · 1,324面 · 58,000원 · 全仁植

機械 設備 用語集

A5 · 536面 · 22,000원 · 全仁植

建設關聯公共契約法·會計例規

A5 · 472面 · 25,000원 · 積算研究會

基礎 工學

B5 · 408面 · 24,000원 · 千柄植

工事計劃 및 施工管理

A5 · 344面 · 13,000원 · 全仁植

標準 設計圖集(上)<建交通部>

特大判 · 272面 · 40,000원

標準 設計圖集(下)<建交通部>

特大判 · 256面 · 35,000원

標準設計圖(河川構造物)<建交通部>

特大判 · 328面 · 38,000원

건축·전기 설비 시방서

A5 · 394面 · 24,000원 · 全仁植

콘크리트 구조물의 가설공법

A5 · 406面 · 18,000원 · 全仁植

基礎 地盤 改良 工法

B5 · 308面 · 20,000원 · 千柄植